

사형수 포교 50년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⑩ 사형수 서채택

돈 2백만 원이 부른 살인과 비극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고 했던가. 사형수 서채택은 길이 아닌 길을 기웃거리고,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들었다가 한 순간에 사형수가 됐다. 많은 사형수들과의 인연을 생각해 볼 때, 서채택과의 인연은 나에게 '인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해준 공부였다. 그가 사형수가 된 과정을 들여다보면 인연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법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눈앞의 생이 오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서 씨는 사형수가 된 후 나와의 인연이 있기 전에 더 지중한 불연이 있었다. 서 씨는 "다음 생엔 출가자로 오고 싶다"고 말하고 형장에서 세상을 달리 했다. 그런 그의 발심은 한 비구니 스님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서 씨에게는 어린 두 딸만 있었다. 부인은 오래전에 집을 나갔다. 서채택이 사형수가 되자 어린 딸을 보살 필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서채택의 아이들을 거두어 주지 않았다. 그 때, 비구니 스님 한 분이 서 씨의 소식을 듣게 된다. 앞서도 말했지만 인연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다. 짐작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인연은 그렇게 닿아야 할 곳에 가 닿는 것이었다. 그 비구니 스님이 서 씨의 딸 둘을 거두었다. 서 씨의 불심은 거기에서 시작됐다. 아무도 거두어 주지 않는 자신의 딸들을 거두어 준 스님, 결국 자신의 뒷일을 거두어 준 것은 부처님이었던 것이다.

연대가 정확하지는 않다. 1980년대 중반쯤인 것 같다. 서채택은 시골 농부였다. 한 해에 두세 차례 밭떼기 장사를 했다.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농한기에 접어들면 농촌에서는 삼삼오오 이웃들이 사랑방에 모이고 어김없이 화투판이 벌어진다. 서 씨의 마을 역시 그랬다. 문제는 늘 화투판의 성격과 크기다. 놀이를 넘어 도박판이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서 씨의 비극도 도박판이 되어버린 그 사랑방에서 시작됐다.

서 씨는 화투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저 구경꾼이었다. 서 씨도 마땅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루의 많은 시간을 사랑방에서 보냈다. 그 사랑방이 서 씨에게는 가지 말아야 할 길이었던 것이다.

하루는 서 씨의 친한 친구가 화투판에서 돈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 친구는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서 씨에게 돈 2백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다. 사건의 발단이다. 서 씨의 친구는 날짜까지 약속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서 씨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돈 2백만 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서 씨의 친구가 돈을 따지 못하고 그 돈을 모두 잃고 만다. 당시의 2백만 원은 큰돈이었다.

서 씨의 친구가 서 씨에게 돈을 갚기로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다. 서 씨는 친구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도 친구는 오지 않았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서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친구를 찾아갔다. 친구는 저녁밥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친구는 서 씨를 보자 서 씨에게 술 한 잔을 권했다. 술잔이 오고 갔고, 두 사람은 얼큰하게 취하기 시작했다. 취기가 오른 서 씨가 돈 이야기를 꺼냈다. 그러자 서 씨의 친구가 버럭 화를 냈다. 서 씨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말이었다. 아니 서 씨가 아니라 서 씨의 친구가

돈 문제로 다투다 살인까지 저질러
남겨진 두 딸, 비구니 스님이 거둬
감옥에서 佛恩 생각하며 불교 귀의
"내생엔 스님으로 다시 오고 싶어요"

먼저 꺼냈어야 할 말이었다. 서 씨에겐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다. 서 씨의 친구는 "화투판에서 빌린 돈은 빚도 아니다"며 화투판에서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리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다. 아니 도리어 화를 냈다. 서 씨는 배신감에 너무나 분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온 것이다. 화가 난 서 씨는 친구의 멱살을 잡고 돈을 갚으라고 했고, 두 사람은 몸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몸 싸움이 점점 격해졌고, 이성을 잃은 서 씨의 친구가 창고에서 곡괭이를 들고 나왔다. 친구는 그 곡괭이로 서 씨의 정강이를 내리찍었고, 그러자 서 씨가 곡괭이를 빼앗아 친구를 내리쳤는데, 공교롭게도 머리를 때리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친구가 숨지고 말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당황한 서 씨는 친구의 시신을 땅에 묻어버렸다. 그리고 얼떨결에 저지른 일이 엄청난 비극을 몰고 온다. 서 씨가 친구의 시신을 땅에 묻지 않고 바로 자수했다면 애초에 비극은 없었다. 정상참작과 정당방위, 과실치사 등으로 서 씨의 죗값은 훨씬 가벼웠을 것이다. 박수 받을 일은 결코 아니지만 사형수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니, 그 보다 훨씬 가벼운 형량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형수가 되었다. 죄목이 '살인강도'였기 때문이다.

시체를 땅에 묻은 것도 큰 잘못이었지만 서 씨는 또 다른 실수를 범했다. 서 씨는 시체를 땅에 묻는 과정에서 시체의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돈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은 것이다. 살인에 강도였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일이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 한 사람, 아니 두 사람, 아니 네 사람, 아니 나는 차치하더라도 비구니 스님까지 생각한다면 많은 사람의 삶을 바꾼 것이다. 그러니 눈앞의 인연만이 인연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인연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서 씨를 서울구치소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는 "다음 생에 스님으로 오겠다"고 자주 말했는데 그 말 속에 들어있는 그의 불심이 무엇보다 내 가슴을 무겁게 했다. 자신의 두 딸이 부처님 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 서 씨의 마음속엔 그 때부터 부처님이 크게 자리 잡았던 것이다. 그는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부처님의 길을 걸었다. 생사를 넘어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부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웠다. 늘 사형수 앞에 서면 안타깝지만 유난히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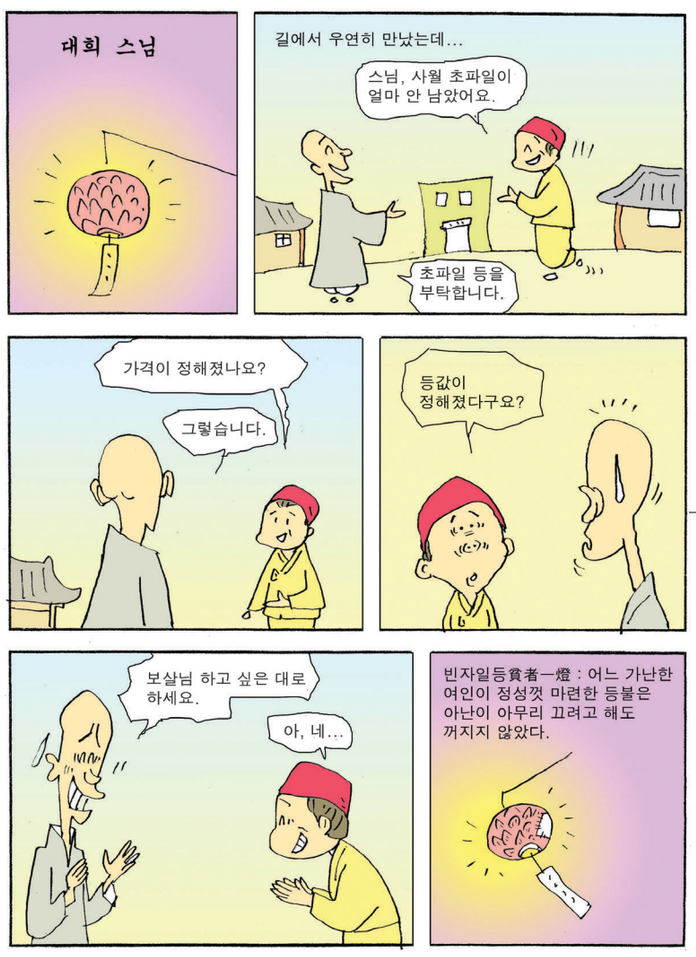
서 씨의 딸을 거두어준 비구니 스님은 끝내 자신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거부했다. 자신이 거둔 두 딸들의 장래를 걱정해서였다. 서 씨가 형집행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는 서 씨의 두 딸을 거두어준 비구니 스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서 씨의 두 딸을 만날 수 있었다. 착하게 잘 자란 두 딸을 보니 또 한 번 인연의 지중함을 새삼 생각했다. 착한 손길이 또 다른 착한 손길을 만들었다. 그렇게 어진 손길을 만나고 갔으니 서 씨의 다음 생은 틀림없이 불가에 들었을 것이다. 이미 자신의 딸을 거두어준 스님을 스치고, 두 딸들 곁을 스치고, 나의 곁을 지나가고, 친구의 곁을 지나갔을지 모른다. 그 때, 나는 스님께 여러 번 고마움의 절을 하고 절을 나왔다. 나 또한 큰 공부였다.

정리=박재완 기자



이란 보살의 '밥 짓는 소리'
⑩ 대희 스님 · 크로바 아파트 회장님

길에서 만났기에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지요.(步步談) 만날 때마다 잊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 큰 대(大), 기쁠 희(喜)라고. 은사스님께서 크게 한 번 웃으라고 지어 주셨답니다. 어느 순간, 문을 열고 크게 웃으려니 웃음이 지워지며 닫힌 문만 그리움으로 고였답니다. 길(道), 길(道), 길(道)에서 만나 보보담(步步談)한 스님이 길인가요? 저 길인가요? 어느 길에서 크게 웃고 계십니까?



물건과 사람은 서로 인연을 맺고 살고 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말이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분이 몇 분 계시다. 전에 살던 아파트 회장님도 그 중 한 분이시다. 고루할 만큼 깍두기 예의범절형에 존댓말을 꼬박 쓰고 길을 가다가도 만나면 가던 길을 멈추고 두 손 모아 인사하는 예의 바른 할아버지이시다.(전직 교장선생님)

하루는 "보살님, 어디 가세요?" 하시며 가까운 절에 갈 때 참배하고 싶다 하셨다. 어느 날, 기회가 생겨 한 번 모시고 절에 다녀오는 도중에 하신 말씀이다. 그 후, 생각날 때마다 떠은 '이 뭣고'로 잡수셨으니 천주교 공원 묘지에서 우담발화 꽃을 피우시라고 축원한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